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이번 목요일(9월13일) 저녁 8시 교척개정위원회로 모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9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윤정호 집사 (시 19)

이번 주 친교: 임미숙 집사, 임수연 집사

다음 주 친교: 김민아 집사, 황혜영 집사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예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안정자 권사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살전 (1 Th.) 1:10; 2:19-20; 3:11-13; 4:13-18; 5:23-24** -----인도자
 설교(Sermon)----- “하나님의 나팔소리”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1장 (통1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180장 (통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Psalm) 125 ----- 오영숙 집사
 찬양(Choir) ----- “나의 눈 열어주소서”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살전 (1 Th.) 1:10; 2:19-20; 3:11-13; 4:13-18; 5:23-24**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설교(Sermon)----- “하나님의 나팔소리” -----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 391장 (통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에게 (살전 2:17-3:8)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고 감사해 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는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따릅니다(1:3,4). 어둠 속에 빛이 더욱 환한 것처럼, 살아있는 물고기 물결을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

편지를 쓸 당시 바울에게도 거친 물결과 파도에 휩싸인 것처럼 고난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후 가게 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 많은 이가 믿고 교회가 섰지만(2:2), 곧 살해 위협을 피해 떠나야 했고 여러번 돌아가려던 길도 막혔습니다(2:17-18).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예상했던 환난이 닥쳐 바울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3:4).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디모데를 보내 소식을 묻고 교회를 돕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주 안에서 굳게 서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 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걱정에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제는 살겠다는 말입니다(3:6-8).

물결과 파도를 거슬러 오르느라 지치고 힘들었는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만난 것처럼 위로를 받은 바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은 그렇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조마조마한 평강이 아니라, 소리를 높이는 파도 위에 든든히 선 반석과 같은 평강입니다.

바울이 위로를 받고 살게 된 것은 일이 잘되어서가 아닙니다. 고난과 근심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었고, 그가 진 명에가 주님이 친히 지신 명에인 것을 알려주셨기에 힘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여 근심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들이 잘돼서 기쁜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명에를 멘 것은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모와 같이 유순하게 양육했습니다. 아비와 같이 각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2:7, 11).

주님은 그 명에가 주님의 명에임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았습니다.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2:13).

고난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누구와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지난 후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지, 더 큰 불안에 강박해지는지가 가름됩니다. 아무 일 없이 잔잔한 물에 혼자 있는 것보다, 폭풍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짜이고 확실한 복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찾아온 평안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평안, 우연히 주어졌기에 홀연히 없어질 허망한 평안이 아니라 평강의 근원 주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굳게 선 즉 우리가 살리라.” 바울의 사랑이 담긴 고백이기도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고난을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기쁨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평안할 때에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자매여! 주 안에서 굳게 섭시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펴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여!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위에 든든히 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믿음을 따라 힘쓰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며, 보지 못하는 하늘의 약속을 소망함으로 오늘 인내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살겠다”고 기뻐하십니다.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이 우리가 굳게 선 것을 보며 하나님께 함께 기뻐합니다. 거기가 진짜로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의의 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풍성한 상 베풀어주시는 자리입니다.